www.khidi.or.kr, www.khiss.go.kr

KHIDI Brief

발행일_ 2023. 5. 22.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차순도

보건산업브리프 Vol. 378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러 보건의료 협력 현황 및 전망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김태경, 김광점**

Contents

Ⅰ. 서론

Ⅱ. 우크라이나 사태

Ⅲ.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

Ⅳ. 한-러 교역 및 보건의료 교류 현황

Ⅴ. 한-러 보건의료 협력 전망

Ⅰ 서론

◉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초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화 되고 있는 이번 전쟁은 향후 국제사회의 질서 재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09년 5월 1일, 정부의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중의 하나로 Global Healthcare 산업이 선정되었다. 이후,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환자들이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10여 년간 이어오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 국제의료(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사업에 있어 주요 파트너국인 러시아와의 보건의료 교역 및 교류·협력 현황,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Ⅱ 우크라이나 사태

◉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제사회도 강제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친러 성향이 강했던 우크라이나 돈바스[1] 지역에서는 러시아와의 합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서 내전이 발발하는 등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결국 2022년 2월 양국간 전쟁이 발발했다.

◉ 크림반도는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편입된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양국 간에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다. 민족구성을 보면 러시아계 60%, 우크라이나계 20%, 타타르계 15% 및 그 외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2] 러시아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2014년 러시아와의 합병에 관한 주민투표 시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는 등 크림반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국적 변경에 큰 거부감이 없었다.[3]

◉ 하지만 유엔에서는 2014년 3월 27일,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100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등 11개국[4]만 반대했다.[5] 현재까지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그러던 중, 2021년 10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주변에 군사 물자 및 병력을 배치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6] 하지만 이같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1)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최동부 지역으로 소련 시절 많은 러시아 노동자가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러시아계 인구 비중이 높은(약 30%) 친러 성향의 지역이다. 크림반도 병합 이후,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 편입되고자 하였으나 좌절된다. 이후,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내전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도 지속되었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n.d.-a).

2) 위키백과(n.d.-a).

3) 네이버 시사상식사전(n.d.-b).

4) 11개국 :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5) 위키백과(n.d.-b).

6) Brian I. Park & Soonmahn Park(2022).

2월, 나토(NATO) 가입 의지를 표명하며 러시아를 더욱 자극했고,[7] 결국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한다.[8]

◉ 전쟁 발발 초기,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2~3주 내로 전쟁을 종식할 것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거셌고, 전쟁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림1] 우크라이나 영토 중 러시아 점령 지역(2023.4.21. 기준)

자료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n.d.).

〈표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2.24.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감행
2022.2월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남·동·북으로 진격
2022.3월	러시아군, 제2도시 북동부 하르키우에 격렬한 공습
2022.4월	우크라이나군, 수도 키이우의 북쪽 도시 부차 수복
2022.4월	러시아군 철수 시, 부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
2022.5월	러시아군, 병력과 무기 우크라이나 동남부로 재배치
2022.5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격렬한 전선 형성
2022.6월	미국, 우크라이나군에 하이마스 로켓시스템 지원 ▷ 러시아군 손실
2022.9.21.	러시아 정부,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 발동

7) 조한범(2022).

8) 독일 통일 전 독일과 미국은 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미국은 독일 통일과 함께 동독을 나토에 편입시켰으며, 소연방 해체 이후에는 동유럽으로까지 나토를 확장시켰다(조한범, 「우크라이나 사태 평가와 국제질서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2022).

2022.10.8.	러시아 본토-크림반도 잇는 크림 대교 폭발
2022.10.10.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전역 대대적 미사일 보복
2022.11.11.	우크라이나군, 남부 헤르손 탈환
2022.12.7.	푸틴의 '핵전쟁' 암시, 동부지역 공방전 격화
2022.12.21.	젤렌스키, 미국 워싱턴 방문
2023.1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 지속
2023.1.16.	러시아군, 동부 솔레다르 점령
2023.1.25.	미국·독일, 우크라이나에 M1A2 에이브럼스·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 발표
2023.2.20.	바이든 키이우 방문, 5억 달러 군사원조 약속
2023.2.21.	푸틴 국정 연설, '특별군사작전' 정당화
2023.2.23.	UN "러시아 즉각 철군" 요구 결의안 채택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Ⅲ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EU, 영국, 호주, 일본 등 38개국은 대러제재에 동참하였다. 제재의 범주는 크게 무역제재, 금융제재, 기타제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9)]

〈표2〉 미국의 주요 대러제재 확대 경과

- 무역제재 - 금융제재 - 기타제재

일자	미국
22.2.22	국채 거래 및 대출 금지(러 재무부, 중앙은행, 국부펀드, 직접투자기금)
22.2.24	CCL(미국 상무부 통제목록) 카테고리 3-9(3:전자공학/4:컴퓨터/5:통신·정보보안/6:센서·레이저/7:운항시스템·항공전자공학/8:해양/9:항공우주산업·추진체) 품목 허가요건 부과(일반적 허가거부 검토 정책 적용, 일부 건별 검토)
	FDPR(외국산직접제품)* 통제범위 러시아에 적용 *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특정 국가에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
	미국 달러 거래 계좌 제한(스베르방크 및 자회사 25개 대상)
	자산동결(VTB 은행 등)
22.2.25	자산동결(푸틴, 라브로프)
22.2.26	7개국(미국, 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7개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는 공동성명 발표 * Bank Otkiritie, Novikkombank, Promsvyazbank, Bank Rossiya, Sovcombank, Vnesheconombank(VEB), VTB bank 등
22.2.28	러 재무부/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일체의 거래 금지
	자산동결(직접투자기금)

9) 전략물자관리원(2022).

22.3.2	벨라루스에 대러시아 제재를 동일하게 부과
	러시아를 국가 그룹 D:5(미 무기금수국)로 지정
22.3.8	러시아산 원유(석유, 석유연료, 석유제품, LNG, 석탄) 등 대미 수입 금지
22.3.11	러/벨 사치품 수출 통제
	러시아산 수산물, 주류, 다이아몬드 대미 수입 금지
	미국인은 러 정부나 러에 위치한 자에게 달러화 (재)수출, 판매, 공급 금지
22.3.24	자산동결(400여 개인 및 단체(개인에는 러 국회의원 300여 명 포함)
22.4.6	미국인의 대러 신규투자 전면금지
	자산동결(스베르방크, Alfa 은행, 푸틴/라브로프 자녀·가족·측근 등)
22.4.7	자산동결(국영 다이아 광산기업 Alrosa, USC 조선사 및 임원 등)
22.4.8	러/벨 최혜국 대우 박탈
	러/벨에 대해 CCL 카테고리 0-9(0:핵물질·시설·장비 등/1:화학·미생물·독성 물질/ 2:가공재료)로 허가요건 확대 부과
	러/벨 FDPR 적용 대상 CCL 카테고리 0-9로 확대
22.4.20	자산동결(Bitriver 가상화폐 채굴 기업 등)
	여행금지(러/벨 개인 655명)
22.6.2	자산동결(러 고위층 8명, Severgroup 포함 4개 단체 등)
22.6.6	자산동결(State Corporation Rostec 포함 70개 단체와 29명 개인 등)
22.6.30	러시아산 금 수입금지
	여행금지(511명 러시아 군 관료, 개인 18명)
22.8.2	자산동결(JSC GTLK 및 자회사 등)
	여행금지(893명 러시아 관료 러시아를 지원한 31명의 외국 관료)
22.9.15	대러제재 분야에 양자컴퓨팅 분야 추가, 향후 동 분야 종사자 금융제재 가능
	자산동결(러 31개 군 관련 업체, 러시아 관료 22명 등)
22.9.16	러/벨 수출통제 품목추가(생화학 무기 관련 물질 및 장비, 양자컴퓨팅 관련 품목 등)
22.9.30	자산동결(군사 산업 관련자 14명, 금융 고위층 3명, 러 입법부 관계자 278명 등)
	여행금지(러/벨 군사관련자 910명)
22.12.5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USD 60)를 초과하는 원유 해운 관련 서비스(보험, 중개, 운송 등) 제공 금지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2022) 자료 재구성.

- 특히, EU, 영국, 일본, 호주 등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제재를 단행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제재 대상을 지속 확대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 러시아 역시 대응했다. 2022년 3월 7일, 48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를 부과하였는데, 비우호 국가의 기업과 개인의 모든 거래는 러시아 정부 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이며, 비우호 국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러시아 기업은 루블화로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10] 러시아는 2022년 7월 22일에 바하마, 10월 29일에는 영국 왕실 속령 및 영국 해외영토까지 비우호 국가로 추가하였으며, 현재는 총 49개국이 비우호 국가에 지정되어 있다.

10) 김용민&정주석(2022).

〈표3〉 러시아 정부 지정 비우호 국가 대상(2023년 기준 총 49개국)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바하마, 영국(영국 왕실 속령 및 영국 해외영토 포함), EU 국가(27개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일본

자료 :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2022).

Ⅳ 한-러 교역 및 보건의료 교류 현황

(1) 한-러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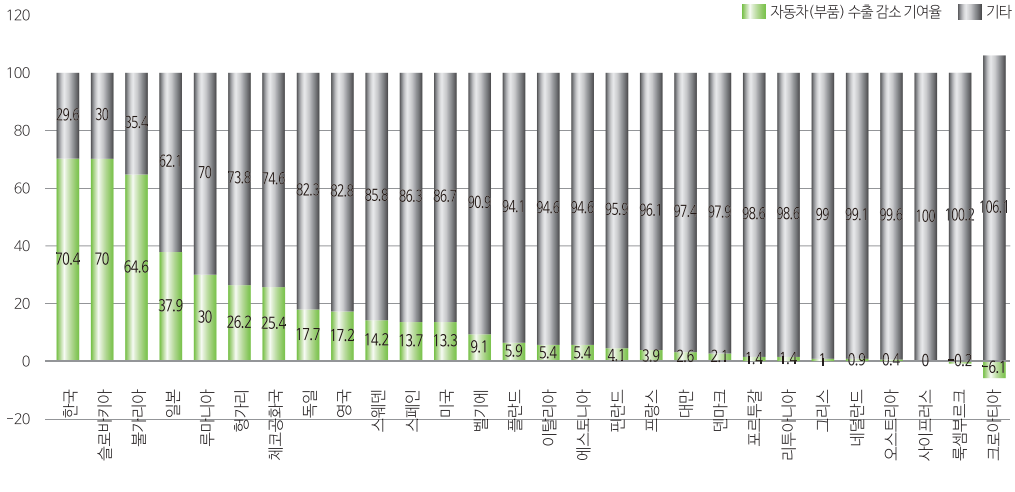
◉ 2022년 한-러 교역 규모는 2021년 대비 22.6% 감소한 211.5억 달러('21년 273.4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양국 간 교역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러시아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36.6%, -14.7%를 기록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표4〉 대러 수입 및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1	2022	증감률
수입	173.6	148.2	-14.6%
수출	99.8	63.3	-36.6%

자료 : 도원빈·최수빈(2023) 자료 재구성.



[그림2] 대러 수출 감소국의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기여율

자료 : 도원빈·최수빈(2023).

◉ 우리나라는 대러 수출 감소에 있어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부문의 수출 감소 기여율은 전체 수출 감소 중 70.4%를 차지하였다. 반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대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었다.

◉ 우리나라의 대러 수입규모 역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 수입 감소에서 에너지 부문의 수입 감소 기여율은 81.3%에 달했다.[11)]

[그림3] 대러 수입 감소국의 에너지 수입 감소 기여율

자료 : 도원빈&최수빈(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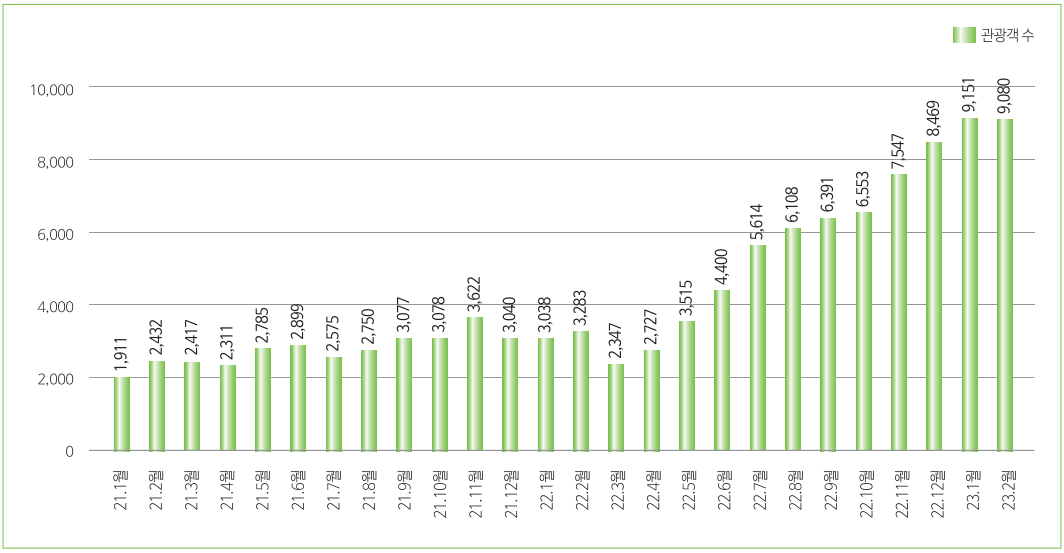
(2) 한-러 보건의료 교류 현황

〈의료서비스〉

◉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이 기대되며, 2023년 들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2021년 967,003명에서 2022년에는 3,198,017명까지 증가하며,[12)] 전체관광시장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20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도 248,000명을 기록하며 2021년도 146,000명 대비 약 70.1% 증가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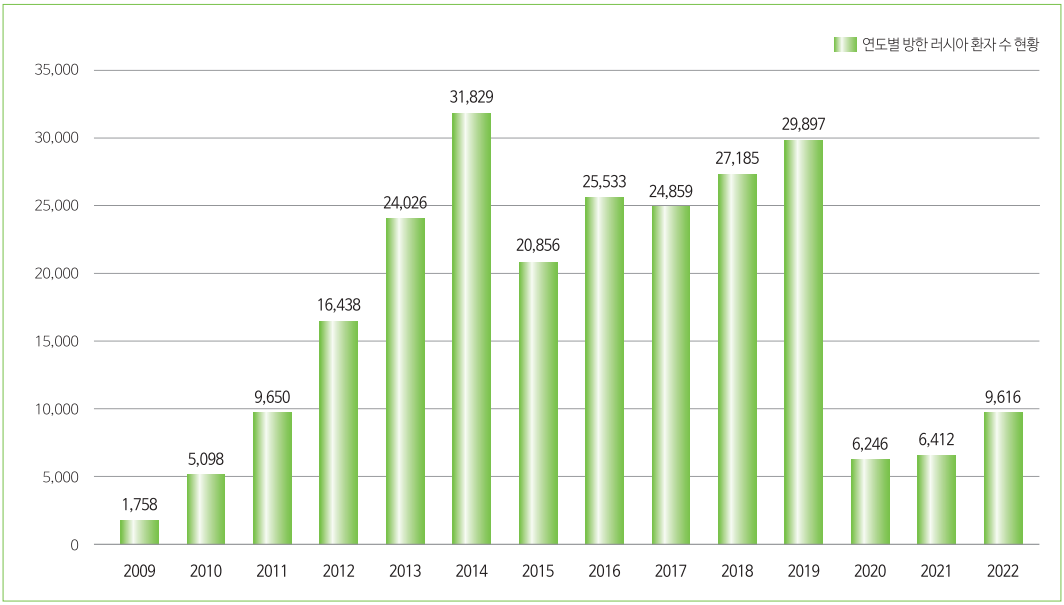
◉ 방한 러시아 관광객의 경우,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의 수 대비 차지하던 순위가 2021년 6위에서 2022년 18위까지 떨어지며,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물론 전쟁이 발생한 바로 직후인 2022년 3, 4월에는 방한 관광객수가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5월부터는 전쟁 이전 시기의 관광객 수를 상회하는 등 방한 러시아 관광객 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2022년 방한 러시아 환자 수 역시 총 9,616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50% 상승한 수치로 일반 관광객 수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였다.

11) 도원빈&최수빈(2023).
12)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n.d.).
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그림 4] 방한 러시아 관광객 수 추이(2021.1~20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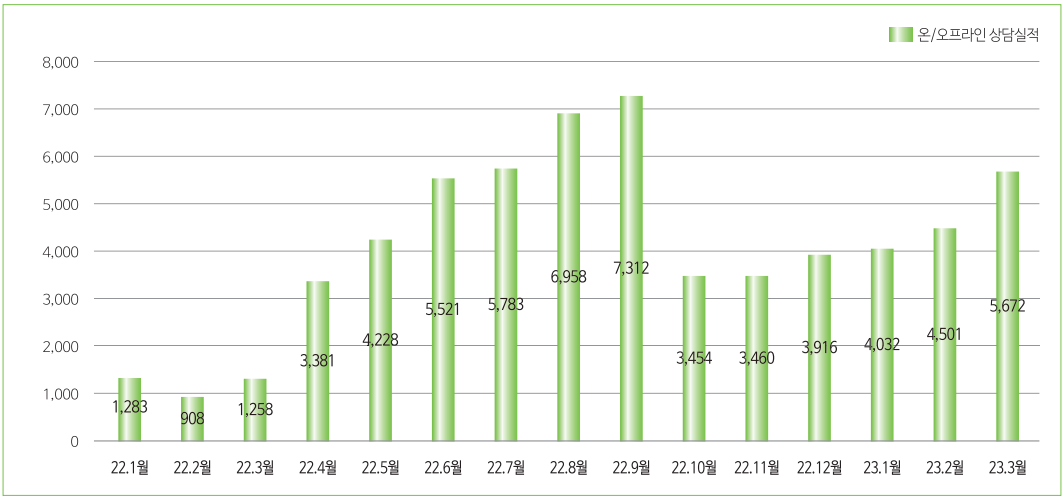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n.d.).



[그림5] 방한 러시아 환자 수 현황(200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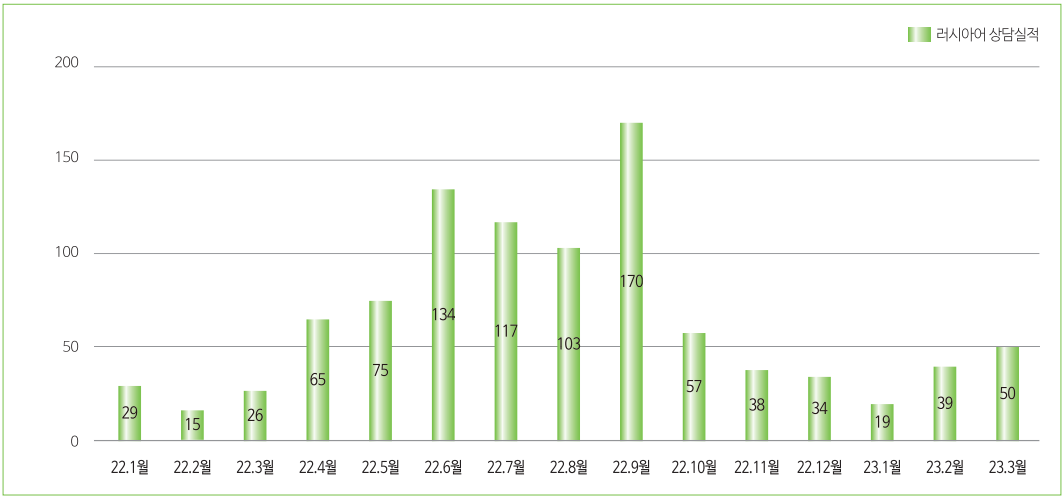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2).

◉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의료서비스 종합정보센터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상담실적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에도 러시아어권 상담실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타 언어 대비 상담실적이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러시아어의 절대적인 상담 건수가 타 언어(영, 중, 일) 대비 적기 때문이다.



[그림6]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인천공항) 전체 상담실적 추이(2022.1.~2023.3)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 자료.



[그림7]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인천공항) 러시아어권 상담실적 추이(2022.1.~2023.3)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 자료.

◉ 반면 러시아를 찾는 한국 관광객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이맘때쯤인 2022년 6월, 러시아 여행사협회는 항공편 감소, 비행 운임상승, 비자 및 카드 결제 불가능 문제 등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러시아 방문 건수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14] 실제로 2022년 기준 방러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1년 288,300명에 비해 약 30%[15] 감소한 200,100명이었다.[16]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시행된 내국인 출입국신고간소화 제도로 인해 내국인의 정확한 출국 행선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러시아 전역에 현재까지도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방러 방문객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최병천(2022).
15) 원문에서는 '약 1.5배 감소'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시된 수치상 30% 정도 감소한 수치이기에 저자가 30%로 감소율을 변경함.
16) Коммерсантъ(2023).

◉ 2009년 방한 외국인 환자 수에 대한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후, 러시아 환자 수는 크림반도 강제 병합(2014),[17] 코로나19 팬데믹(2020) 등 외부적 요인이 있던 연도를 제외하고는 지속 증가했다. 러시아는 2022년 방한 외국인 환자 국가 순위에서 7위[18]를 기록했는데, 러시아 내에서는 우수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극동 지역(블라보스토크주, 하바롭스크주 등) 주민들의 경우, 자국 의료인프라가 열악하기에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많이 찾고 있다. 2022년 방한 러시아 환자 수는 9,616명으로 전년 대비(6,412명) 약 50% 증가했다. 타 국가 대비 평균 증감률이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19] 전쟁의 여파에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환자들은 증가한 것이다.

◉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 리스트에 포함하였고, 서방의 각종 무역 및 금융 제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한 러시아 관광객 수 및 외국인 환자 수는 여전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예상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당연히 애로사항도 있다.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7개 은행이 SWIFT에서 배제되며 달러로 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기관의 경우, 대금 결제 및 러시아로의 송금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방한 관광객 수 및 외국인 환자 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 러시아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282억 달러로, 러시아는 유럽 내에서 독일(402억 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또한 러시아의 의약품 수입 비중은 56.3%로 높은 편이다.20) 하지만 한-러 양국 간 의약품 교역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전체 의약품 수출 규모(2021년 기준 약 11조3,642억 원(약 85억 달러))[21] 중 대러 수출액은 1.02억 달러 정도로 비중이 매우 낮다. 이에 국내 의약품 기업이 대러시아 수출에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받는 영향력은 예상보다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5〉 대러시아 의약품 수출 규모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규모	0.32	0.38	0.40	0.41	1.02

자료 : 김용민&정주석(2022) 자료 재가공.

◉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의약품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은 녹십자(2020년 기준), 한미약품, 한독약품 순이다. 이들 세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대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1%도 되지 않는다.

17)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시기는 2014.3월이었으나, 루블화 하락 등의 서방의 대러 제재 여파는 실제로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5년 방한 러시아 환자 수는 20,856명으로 2014년 31,829명 대비 약 50% 감소하였다.

18) 2022년도 방한 외국인 환자 수 1위 미국, 2위는 중국, 3위 일본, 4위 태국, 5위 베트남, 6위 몽골 순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9) 외국인 환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 1위-싱가포르(624%), 2위-일본(558.3%), 3위-태국(180.1%), 4위-카자흐스탄(109.2%), 5위-캐나다(102.2%), 6위-우즈베키스탄(64.1%), 7위-중국(56.8%), 8위-몽골(54.7%), 9위-미국(52.6%), 10위-러시아(50%)(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20)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2022).

21)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2022).

〈표6〉 2020년 국내 제약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 대러시아 수출액 및 비율

제조사	수출액(달러)	매출액(백만원)	비율(%)
녹십자	6,331,500	1,504,115	0.51
한미약품	884,279	1,075,854	0.10
한독	315,839	497,227	0.07

자료 : 김용민·정주석(2022) 자료 재가공.

- 하지만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다국적 임상시험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다른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상시험 규제가 덜 하고, 잘 갖춰진 공공의료 인프라에 비해 치료 접근성이 높지 않아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22]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임상의사의 러시아 입국이 어려워졌고, 각종 제재의 영향으로 신규 임상시험 추진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23]

- 일례로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우리나라의 휴온스글로벌 컨소시엄(휴메딕스·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보란파마)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위탁생산(CMO, Cont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중단했다. 또한 종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을 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8개국의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1차적으로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말라리아 치료제 '파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신풍제약도 작년 2월 임상 국가를 러시아에서 콜롬비아로 변경한 바 있다.[24]

〈의료기기〉

- 러시아는 의료기기 수입 비율이 약 7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러시아에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제5위의 의료기기 수입국으로[25]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실제로 2022년 6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자재 및 물류비 인상 등으로 의료기기 업계의 70%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 우리나라의 대러 의료기기 수출액은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의 4.1%(2.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출이 가장 많고,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방사선 촬영기기 등도 주요 수출 품목에 포함된다.[27] 2021년 기준 러시아는 90% 이상의 치과용 임플란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은 39.8%로 전체 1위(수출액 5,100만 달러)에 해당한다.[28] 양국 간 교역 축소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2) 박예지(2022).
23) 김용민&정주석(2022).
24) 이선아(2022).
25)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2022).
26) 임도이(2022).
27) 김용민&정주석(2022).
28) 김영은(2021).

〈표7〉 대러시아 의료기기 수출 규모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기기 수출 규모	1.07	1.56	1.94	2.69	2.69

자료 : 김용민&정주석(2022) 자료 재가공.

◉ 전쟁 발발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을 보면, 배럴당 120달러(22.6월)를 넘겼던 원유(브렌트유 기준) 가격은 현재 81.75달러(23.4.24)선까지 하락했고, 9달러/MMBtu(22.8월)를 기록했던 천연가스(헨리허브 기준) 가격도 2.21달러/MMBtu(23.4.24)까지 떨어졌다.[29] 최근 들어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이 2022년에 비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한 가격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장품〉

◉ 한류와 합리적인 가격 등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러시아 화장품 수입 시장 점유율에 있어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 러시아 화장품 수출 시장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30]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화장품 수출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수출액은 2.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의료기기 산업과는 달리 상당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8〉 대러시아 화장품 수출 규모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화장품 수출 규모	0.97	1.59	2.12	2.44	2.90

자료 : 김용민&정주석(2022) 자료 재가공.

◉ 러시아 Globus Fea[31]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코트라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22년 8~9월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화장품 수출 규모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6.3%, 76.4% 성장했다. 프랑스등의 러시아 화장품 수입 규모 상위 국가의 증감률이 감소한 것에[32] 비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 한편 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대러시아 수출 기업 중 많은 기업이 영세업체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의료기기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 원인 등에 기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종합해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역 및 교류·협력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규모 측면에서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그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보건의료 산업의 경우, 정치·외교적 상황보다는 국민 건강 및 민심 등과 직결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0년 이후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한·러 양국 모두 보건·의료 교류·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

◉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양국 간 보건·의료 교역 및 교류의 규모는 분명 점차 축소될 것이며, 양국 간 협력 관계도 정치적·외교적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9) Financial Times(n.d.).
30) 김태일(2023).
31) 러시아의 수출입 통계 분석 기업
32) 프랑스 수입 감소율 현황('22.8 : -83.9%, '22.9 : -46%, '22.10 : -86.8%) (KOTRA 모스크바 무역관(2023)).

V 한-러 보건의료 협력 전망

- 1990년 한-소(현 러시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2008년에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정치·경제·과학기술·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수준을 한층 격상시켰다. 또한 2009년 5월 1일, 우리정부의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중 Global Healthcare 산업이 선정되면서부터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환자들이 급증하는 등 한국과 러시아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10여 년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 한-러 양국은 견고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대러 유엔 규탄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금지 경고 등 끊임없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우리 역시 한-러 관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물자 지원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전쟁이 지속되는 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한-러 양국 간 교역 및 교류·협력이 지금보다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2022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이 감소하는 등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방한 러시아 관광객 수 및 외국인 환자 수도 증가세에 있긴 하지만, 다른 국가 대비 평균 증감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고, 전체 국가 순위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방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까지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자원 부국 러시아 역시 아직 전쟁을 유지할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이 크건 작건 간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분야의 특수성 상 정치, 외교, 경제 등에 비해 전쟁의 영향을 덜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전쟁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을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은. (2021.12.9.). K-임플란트, 러시아 수입 1위. 덴탈아리랑.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14

· 김용민&정주석. (2022).「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태일. (2023.2.28.). 러·우 전쟁으로 주요국 수출 감소에도…K뷰티 러시아서 순항 중. 팜뉴스.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71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n.d.-a). 돈바스 내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3547&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 2023.4.25.)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n.d.-b).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75238&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 2023.4.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4.6.).「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Y3OLJSdCf8

· 도원빈&최수빈. (2023).「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영향 분석」, 한국무역협회.

· 박예진. (2022.4.2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의료기기 중소기업' 타격.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1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24.).

·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 (2022.8.31.). 2021년 의약품 시장규모 역대 최고… 전년 대비 9.6% 증가.

· 위키백과. (n.d.-a).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https://ko.wikipedia.org/wiki/%EB%9F%AC%EC%8B%9C%EC%95%84%EC%9D%98_%ED%81%AC%EB%A6%BC%EB%B0%98%EB%8F%84_%ED%95%A9%EB%B3%91 (검색일 : 2023.4.25.)

· 위키백과. (n.d.-b). 유엔 총회 결의 68/262.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97%94_%EC%B4%9D%ED%9A%8C_%EA%B2%B0%EC%9D%98_68/262 (검색일 : 2023.4.25.)

· 이선아. (2022.4.27.). 개발 미루고 임상 축소…우크라戰 장기화에 국내외 제약사 '비상'.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4275320i

· 임도이. (2022.7.15.). 의료기기업계 7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영환경 악화".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67

· 전략물자관리원. (2022).「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국의 대러 제재 비교 및 시사점」. https://www.shinkim.com/attachment/31665

· 조한범. (2022).「우크라이나 사태 평가와 국제질서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d48b505b-aeab-4e60-8eb9-3956f01d8e87

· 최병천. (2022.6.30.). 러시아여행사협회 "올여름 러시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없을 것". worldKorean.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525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n.d.). 국가별 방한여행_러시아.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nat/getForTourDashForm.do (검색일 : 2023.4.23)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22).「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헬스케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 Brian I. Park & Soonmahn Park. (202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Financial Times. (n.d.). Commodities. In markets data. Retrieved April 24, 2023, from https://markets.ft.com/data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n.d). Interactive Map: Russia's Invasion of Ukraine. Retrieved April 21, 2023, from https://storymaps.arcgis.com/stories/36a7f6a6f5a9448496de641cf64bd375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2023.2.22.). "위기에도 성장" 러시아의 K-뷰티.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243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0280

· Коммерсантъ. (2023.2.7.). АТОР:урпоток в Россию за 2022 год сократился в полтора раза. https://www.kommersant.ru/doc/5811664?ysclid=lgsvlqajw6848336063

·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территорий, совершающих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юридических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05.03.2022 N 430-р (ред.от 29.10.2022). (2022). https://bit.ly/3L3QTuy

◉ 집필자 :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김태경, 김광점 ◉ 문의 : 043-713-8212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간행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및 보건산업통계포털 (https://www.khiss.go.kr)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